



04

INTERVIEW

“변시 합격률 75%이상 높아지면  
로스쿨 입시학원화 해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14

POWER INTERVIEW

“교육’은 내 인생의  
중요한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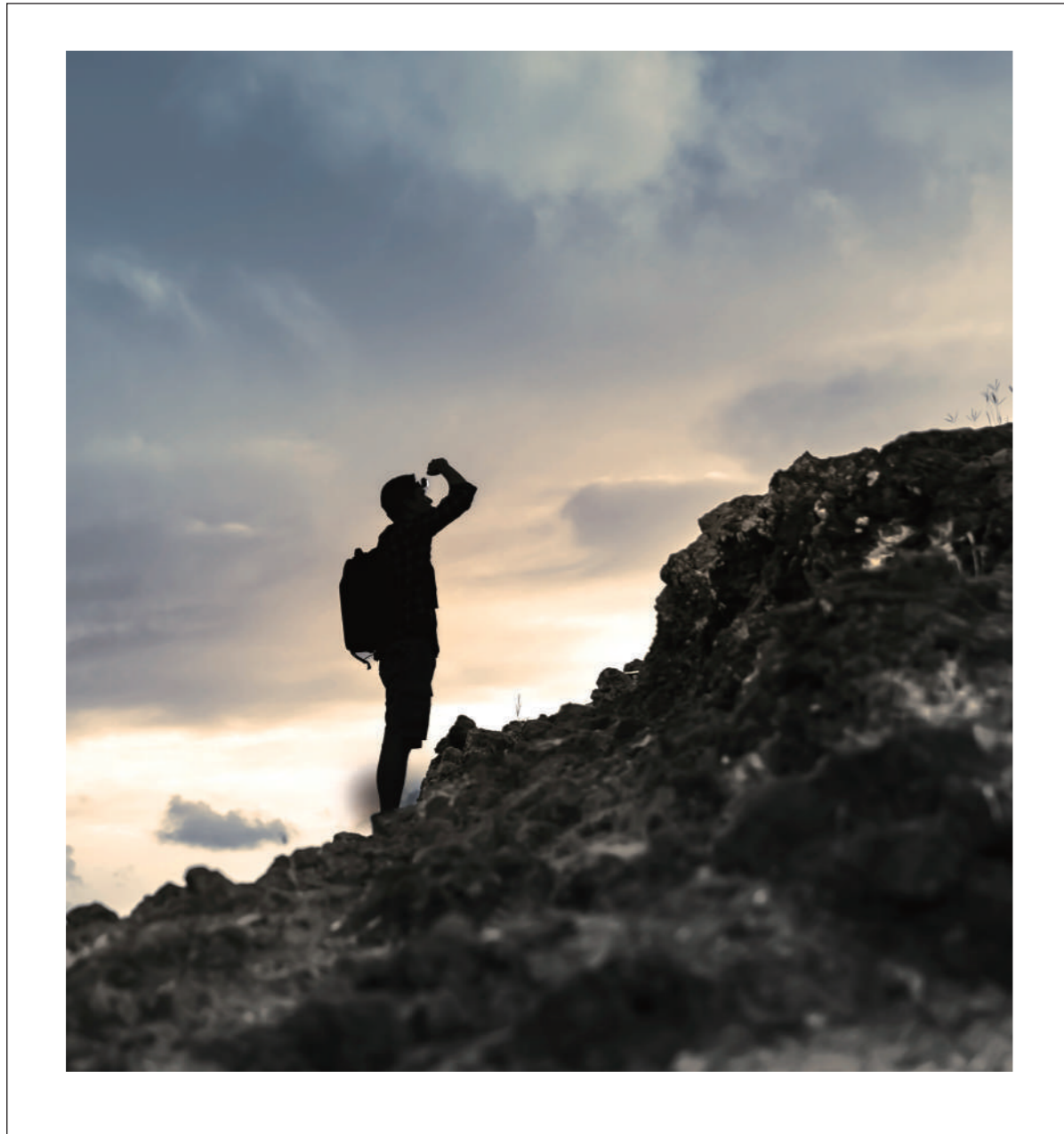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이유  
박은선 변호사

36

LAW FIRM TOUR

“팀플레이 가능한 정통 로펌 지향”  
특화된 분야의 업무 수행 가능

법무법인  
민주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 드니 디드로 -  
(1713-1784, Denis Diderot)

<b>INTERVIEW</b>	04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b>HOT ISSUE</b>	08
<b>HAPPY LAWSCHOOL</b>	10
김미현 학생	
<b>BOOK</b>	13
<b>POWER INTERVIEW</b>	14
박은선 변호사	
<b>REAL STORY</b>	20
이현아 학생 정효영 학생	
<b>CONTEST</b>	26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b>STATISTICS</b>	31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b>HOT CLIP</b>	32
요즘 유튜브 뭐 봄?	
<b>LAW FIRM TOUR</b>	36
범무법인 민주	
<b>LETTER FROM</b>	42
도진수 변호사	
<b>OPINION</b>	44
오재호 연구위원	
<b>QUIZ</b>	47
<b>SPECIAL REPORT</b>	48
로스쿨 리걸클리닉	
<b>HEALTH MENTORING</b>	50
권예진 대표	
<b>LAW TOON</b>	52
소보로	
<b>MOVIE TALK TALK</b>	54
홍수정 영화평론가	
<b>AKLS NEWS</b>	57
<b>OUT CAMPUS</b>	58



표지 이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모한 <로스쿨 창 표지 공모전> 수상작

<법학관과 무지개>  
무지개를 보고 들뜬 원생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한용욱(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이상경 이사장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윤철  
위원 김명기, 김별다비, 송민경, 공태윤  
편집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해경이  
만남 사람 -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상경 이사장이 걸어온 길

- 1965년 출생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S.D.(법학박사)
- 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 現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
- 現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 現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現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변시 합격률 75%이상 높아지면 로스쿨 입시학원화 해결”

“취약 계층에 법조인 길 열어준 것 가장 큰 성과”  
“서열화 원인은 합격률...자격시험화 선행돼야”  
“바람직한 법조인상, 공익기여·전문분야·글로벌”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입학 평가를 위한 첫 법학적성시험(LEET)이 치러지면서 본격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닳을 올린지 15년이 지났다.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돼 로스쿨 제도는 유일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됐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회를 이끄는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헤럴드경제와 만나 “로스쿨의 갈 길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됐다. 현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총평을 해보자면?**

지난 15년 동안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로스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었다.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전액 학비 면제’, ‘생활장학금’을 받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로스쿨에선 매년 300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마련해 재학생의

20%(12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장학금을 마련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의 50% 이상은 장학금을 받고 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법학 교육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학부 교육의 정상화’를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꼽을 수 있겠다. 사법시험 시절엔 3% 미만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사설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학부 학점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와 비교해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로스쿨을 꿈꾸는 학생들이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법과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에서 법학교육이 이뤄지는 곳에서도 더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기초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부 교육이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학문으로서의 법학 교육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

로스쿨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합격률을 조금씩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

**지 않다. 로스쿨의 경우 교육 현장에선 변호사시험 합격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어 입시학원화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비(非)로스쿨 대학의 법학과나 법과대학이 존립을 위협받게 됐고, 그로 인해 법학자 등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걱정이 대두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스쿨뿐만 아니라 법과대학,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로스쿨 시대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주제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의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입시학원화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응시자의 75% 이상 합격)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에 마련된 다양한 커리큘럼, 해외 연계 프로그램 등도 2명 중 1명이 탈락하는 지금으로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소규모 사립 로스쿨의 경우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로스쿨 간 격차를 지적하는 현장 의견도 있다.**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로스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인가 기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정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로스쿨이어도 법정 교원 확보는 20명 이상 유지해야 하고, 장학금 지급 비율도 등록금 대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실정에 맞는 기준 변경과 정부의 장학금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열화 지적과 관련해선 그 원인은 ‘합격률’에 있다고 본다. 의과대학은 전국이

평준화돼 있어 서열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는데, 이는 합격률이 90%를 육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소재 로스쿨은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방 로스쿨은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5~15%) 선발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선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도 비판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변호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들 중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한국이 5.39명인데 미국은 41.28명, 독일은 20.11명, 프랑스는 10.83명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지만 여전히 법률 사각지대·무변촌은 존재한다. 로스쿨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합격률을 조금씩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 미국은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의회 의원의 70% 이상이 로스쿨 출신일 정도로 많은 법률가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률가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가를 양성해서,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이 지향하는 바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헌법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및 집행 여부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헌법재판소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와 관련해 헌법학 전문가로서 의견이 있을지.**

우리나라는 이미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국제 엠네스티에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0년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됐지만, 조만간 다수의 재판관이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사형제도는 필요악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제도 같은 것)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길이라고 하겠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각각 당연직으로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이 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 고위 법조인 후보 추천권을 가진 위원이자 법학자로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상은 무엇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법조인은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사회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 마인드가 잘 갖춰져야 하고 로스쿨에서도 법조윤리교육부터 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사회와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근본 토대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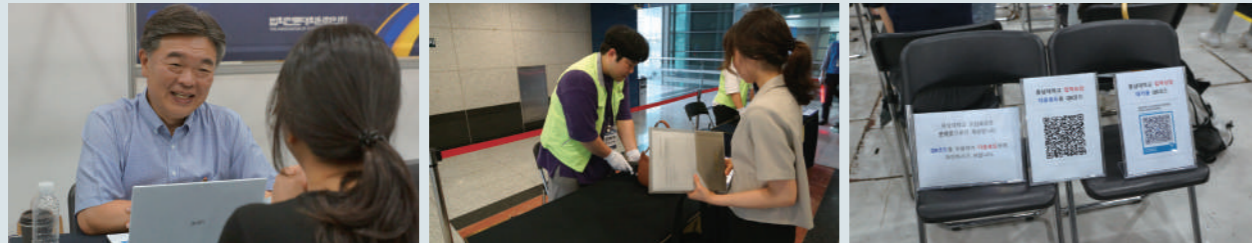
또 전문분야가 있기를 바란다. 25개 로스쿨도 각 전문분야를 내걸고 있다. 법조인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하지, ‘오로지 송무, 오로지 서초동’ 이건 아니다. 적어도 자기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그 능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조인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세계무대로 나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야 한다. 우리 법제에 진짜 선진법제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외국에 가서 심고, 알리고 해야 한다.

issue 01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지난 8월 24일(목)~25일(금) 이틀간 양재 aT센터에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첫날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법전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이 개막 인사를 했으며, 25개 법전원 원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25개 법전원의 개별 상담부스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부스가 마련됐다. 수험생들은 한 장소에서 25개 법전원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입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서는 소지품 검색이 진행됐고, 보안요원도 곳곳에 배치돼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아브라삭스'팀 우승**

8월 24일(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 서류를 제출한 로스쿨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9명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우승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 '아브라삭스'팀에게 돌아갔다.

issue 02

issue 03



**제10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서울대·전남대 로스쿨 특허법원장상 수상**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8월 21일(월)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특허 부문 16개 팀과 상표 부문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특허 부문에선 서울대 로스쿨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이, 상표 부문에서는 전남대 로스쿨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이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issue 04



**로스쿨 발전을 위한 선배 법조인들의  
발전기금 기부 행렬 이어져**

로스쿨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와 법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5일(월) 법무법인 무한 김덕길·백태균 대표변호사는 부산대 로스쿨을 찾아 2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9월 22일(금) 충남대학교 로스쿨 동문의 밤 행사에서도 졸업생 변호사들이 적립한 1800만 원의 발전기금이 학교에 전달됐다.

## “어두운 구석에 초 한 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투철한 충성심, 필승에 대한 신념,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완수하는 정신.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15년간의 육군 복무를 마친  
김미현 학생은 로스쿨 진학을 선택했다.  
그녀의 단단한 여정을 따라가 봤다.

**Q. 대학 졸업 후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장교로 근무하다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할아버지께서는 고등학생이셨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하여 6사단에 배치되었고 12월에 전사하셨다. 그런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겨울 최전선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전투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기도 했다. 그런 마음이 이어졌는지, 군수병과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됐고, 군 생활하는 동안 나의 화두는 늘 전시군수지원이었다. 15년간 복무하고 전역했다.

**Q. 1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다.**

**A.** 군 생활의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은 진지공사 중에 장수말벌

에 쏘여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가, 강력한 독침의 힘이었는지 그해 검도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웃음).

**Q.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A.**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고, 20대와 30대의 청춘을 군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겪으며, 현실 속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직접 전문지식을 갖추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했고, 마흔이 넘는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도 있

었다. 하지만 꿈을 위해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전역 후 로스쿨 입시에 도전했고, 감사하게도 영남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다. 어렵게 기회를 얻은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 후반전은 인권을 지키는 변호사로 살아가고 싶다.

**Q. 법학이라는 학문이 많이 낯설었겠다. 법학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노하우를 소개해준다면?**

**A.**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은 내가 공부해왔던 전공과는 너무나 달랐다. 법전을 입학하고서 처음 보았고, 판례 원문도 입학 후 처음 접하게 됐다. 간결하고 명확한 군대용어에 길들어 있었기 때문에, 함축적인 법률 용어와 길고 난해한 판례 원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똑같은 범위의 공부를 하는데도 나이 어린 동기들보다 2~3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  
미  
현**

의 시간이 걸려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하면 된다’는 군인정신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스스로 칭찬도 한다. 값진 것은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어려울수록 초심과 목표를 생각하며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Q. 영남대 로스쿨 생활은 어떤가?**

**A.**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학생이 되어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일상이 새삼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한 해가 1999년인데 우리 로스쿨에는 1999년 이후에 태어난 동기생들도 많다(웃음). 이들과 동기생이 되어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다.

변호사 시험과 학교 시험을 대비한 공부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동기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원장님께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착이 많으시고 교수님들께서도 매우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며, 학생 하나하나의 과목별 시험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인지도도를 해주신다. 학교에서는 수험에 매우 적합한 커리큘럼을 짜서 이어주고 있고, 동기들 간에는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공부하는 것이 영남대 로스쿨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Q. 로스쿨은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공부량이 매우 많다.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게 힘들지는 않나?**

**A.**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1인

다역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된다. 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가족들께 감사하지만,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가끔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며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엄마도 학교 가기 싫어, 엄마는 지금 가면 밤 12시에 집에 올 수 있어.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시험도 쳐야 해.’라고 우는소리를 하면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도 한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엄마를 이해해 줄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Q. 원더우먼처럼 느껴진다(웃음). 로스쿨에 다니면서 육아를 하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A.** 로스쿨에서 공부하며 출산이나 육아

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공부가 최우선인 생활이란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매우 큰 용기를 내셨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언젠가 남들과는 다른 그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싶다.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아! 그리고 나의 멘토 교수님께서도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며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을 해내신 분으로,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야. 로스쿨에서 아이가 있는 엄마는 반드시 초시에 합격한다!" 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 내가 마음 깊이 간직해온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께도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Q. 로스쿨 입학 전과 입학 후,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게 있다면?**

**A.** 우선 로스쿨 입학 후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눈에 띄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살이 많이 빠진 것이다. 나의 오랜 친구들이 "내일모레 오십이 될 나이에 걸그룹 데뷔하는 것 아니냐"고 놀리기도 한다. 어린 동기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책상과 씨름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삶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면, 입학 전에는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전역을 하고 학생의 신분이 되었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고 큰 용기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는 학교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Q. 미현님만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

**A.** 매일 아침 3Km를 달린다. 땀 흘리고 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다. 뛰면 생각이 줄어든다는데 나는 그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몰아서 한다.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지난 일을 반성하기도 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밤에 공부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시곤 하는데 그 시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A.** 언젠가 한 변호사님께서 쓰신 "변호사의 직업이란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다. 권세에 굴하지 않고 돈에 팔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립하여 투쟁하는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보고서 참 오랜만에 가슴이 떨렸던 적이 있다. 불빛에 비유해 보자면 네온사인 같은 화려한 불빛도 좋겠지만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어두운 구석에 초한 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Q. 끝으로 동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행군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결코 먼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우들 사이에서 묵묵히 파이팅을 외치며 나아갈 때, 짓무른 발이 양말에 들러붙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모두가 목표한 지점까지 낙오 없이 완주하는 환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지력과 체력의 극한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할 로스쿨 생활, 변호사 시험이라는 혹독한 시험 앞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 각자의 시계가 있고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면 우리들의 꽃밭에서 다 함께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다(웃음).

**김미현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본질과 균형**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공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들일 테니, 감히 팁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과목별로 기출 분석 잘하고, 학부생은 GPA 관리 잘하고, 영어시험 잘 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10월이면 면접을 준비 중일 테니 면접에서의 나만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 수 있겠다. 그것은 '본질'과 '균형'이다. 나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서,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일까?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에 집중했는데 내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반드시 꽃핀다**  
높은 경쟁률에 막막함과 큰 벽을 느끼고 있다면 경쟁률이라는 데이터에 너무 기죽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핵심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일 뿐이다. 로스쿨 입시 준비 때 멘토께서 보내 주셨던 '꽃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라는 시가 참 커다란 힘이 되었다. "나는 반드시 꽃핀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출간**

(민사소송법·민법·상법·행정법·헌법·형사소송법·형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민사소송법·민법·상법·행정법·헌법·형사소송법·형법 7개 주요 과목의 표준판례 연구 개정판을 출간했다. 표준판례 연구는 표준판례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법원협의회가 2019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초판 발행 이후 변경된 판결과 중요판례 등이 보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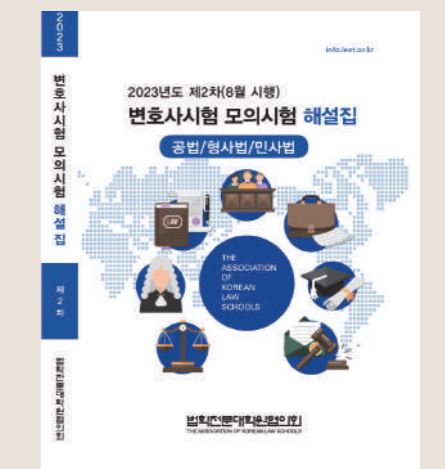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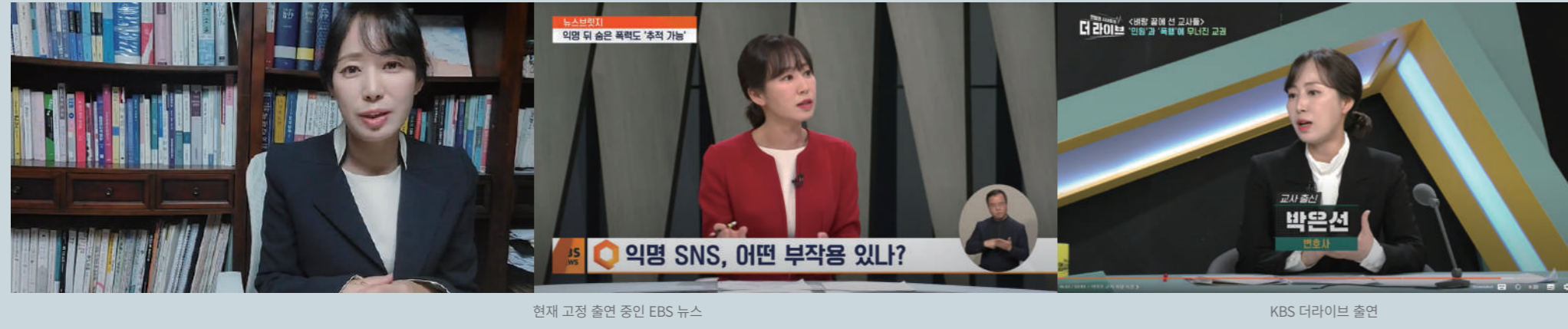
- ▲민사소송법(454선) ▲민법(930선) ▲상법(516선) ▲행정법(485선) ▲헌법(331선) ▲형사소송법(416선) ▲형법(498선)

**2023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8월에 시행된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이 담긴 해설집이 발간됐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b>제 작 대 상</b>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 사례형에 한함
<b>판 매 가 격</b>	2023년도 제2차(8월 시행) - 단행본(10,000원) / 태백비 5,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b>신 청 방 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주문</li> <li>•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li> <li>•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li> </ul>





## “교육’은 내 인생의 중요한 화두”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아동학, 사회교육학을 모두 전공했고 1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또, 교사 시절 시민기자 활동을 했고 다섯 권의 책도 출판했다. 이런 특이한 이력 때문인지, 로스쿨 재학 중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부끄러운 교사였지만, 그럼에도 교육은 내 인생의 중요한 화두”라고 말하는 박은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변호사가 되기 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쳤고, 교직이 적성에 잘 맞았는지 궁금하다.**

**A.**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했다. 특히 신설 교과 ‘법과사회’를 좋아했는데, 직접 만든 부교재 제목대로 별명이 ‘마법사(마스터 법과사회) 은쌤’이었고, 학생들과 모의재판 대회나 토론 대회도 준비하곤 했다. 그때만 해도 평생을 교사로 살 줄 알았다. 사회과 교사인 게 자랑스러웠고, 학생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했다.

**Q. 로스쿨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A.** 교직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득이 학교를 떠나며 다시 사회적 삶을 살고자 로스쿨에 갔다. 마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시간이 생겼고, 남편의 발령을 따라와 잠시 살게 된 제주시의 20분 거리에 제주대 로스쿨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사-정교사-기간제교사-정교사’의 특이한 과정을 거치며 기간제교사 제도의 문제나 사립학교 비위에 눈 뜨기도 했고, 입시 중심 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아, 법을 무기로 교육을 개혁하고 싶기도 했다.

**Q. 교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A.** 당시 주변인 대부분이 내가 쌍둥이 육아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알았다. 졸업한 제자가 공부하기 싫다고 가출(?)해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아침에 깨워 로스쿨로 데리고 가 “나는 이 나이에 공부한다. 도망치지 말아라.”라면서 비밀(?)을 말해준 게 기억난다. 그 덕인지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공부에 전념했고 지금은 멋진 선생님이 살고 있다.

가족의 도움이 컸고,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줬다. 특히 한 변호사의 응원이 큰 힘이였다. 로스쿨 진학 당시 나에겐 정확한 롤모델이 있었다. 내 사건 대리인이기도 했던 교사단체의 강영구 변호사인데, 교육과 삶에 많은 공감대가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변호사’다. 그가 내 로스쿨 합격 소식에, “교육도 알고 법도 알고, 최고의 선택이다. 어서 변호사 돼라. 같이 할 일이 많다.”고 말해준 게 가장 기뻐했다. 최근 그와 교육에 관해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큰 행복을 느낀다.

**Q. 로스쿨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늦은 나이에 쌍둥이 엄마로서 로스쿨을 다니다 보니 다소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스티디조차 하기 어려웠고, 아이들 등에 업고 이어폰으로 인강을 듣다가 잠들면 책을 뺐고, 아이들이 수족구에 걸리면 학교에 갈 수조차 없어 평평 울기도 했다. 주말엔 아이들과 놀러 나가야 하니, 책을 뜯어 들고 다니며 공부도 육아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광펜으로 뭔가를 칠하는 엄마가 그림 그린다고 생각해서 딸이 엄마를 따라 하다가 그림에서 소질을 발견한 것 같아 보람이 좀 있다(웃음).

**Q. 로스쿨 재학 중, 자격시험임에도 합**

엄마는 공부하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던 로스쿨 시절







9월 21일 헌법재판소 앞 임신·출산 관련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기자회견 모습(가운데 연두색 자켓을 입은 이가 김누리(소송당사자), 마이크 잡은 이가 박은선(소송대리변호사). 그 외 참여연대, 민변 교육위, 새청년변호사회, 평생응시금지 철폐연대 등 지지자 참석)

격자 수가 통제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로스쿨생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제기 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이른바 ‘로즈마의 편지’가 인상적이었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

A. 여전히, 당연히, 완전히 같은 입장이 아니다. 8기인 내게, 로스쿨엔 ‘교육’이 없었다. 판례를 바꿀 혁신적인 학생들을 토론하는 수업이나 실무가 교수님의 실제 사건 기록을 활용한 실무 수업이 있었던 초기 기수 얘기가 내게는 전설이었다. 다양한 전공,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전문적, 전인적, 실무적 법조인양성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로스쿨이었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양성한다고 했다. 더욱이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은 오직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했다. 로스쿨 3학년 때 “법무부장관님, 데이트 신청합니다”라면서 기득권 변호사들의 변호사 수 통제와 이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에 관한 ‘로즈마의 편지’를 쓴 것은 그래서였고, 합격하자마자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도 그래서였다. 교사들이나 국회 교육위원실에서는 로스

쿨의 현실을 들으면 깜짝 놀란다. 이렇게 하려면 사법시험 체제와 뭐가 다르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변호사시험을 엄격한 선발 시험으로 운용해 로스쿨에 로스쿨다운 교육이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교육계에선 상식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는 이들을 거의 못 봤다. 변호사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형해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변호사의 자격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기만을 멈추는 게 낫다. 적어도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편이 오히려 공익이다.

Q.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A. 로스쿨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오탈제도’라고 생각한다. 오탈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고시낭인 방지 등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오탈제도는, 오로지 변호사시험이 절대적 자격 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에 이르는 모든 이가 변호사 자격을 갖도록 운용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 기계적으로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

변호사의 자격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야만 한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기만적인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낫다. 적어도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편이 오히려 공익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다음 날부터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했던 대한변협 비판 1인 시위

(실제 4년)이 지나면 시험응시 기회를 박탈해 그 기간에 암투병을 하건 사고를 당하건 임신, 출산을 하건 예외가 없도록 하니, 억울한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시험을 두 번밖에 보지 못한 채 오탈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을 대리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산 29일째에 변호사시험이 시작돼 시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의학적 산욕기(출산후 안정이 필요한 6~8주)나 근로기준법의 의무적 출산휴가기간(출산 전후 90일)조차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시효정지, 혼인·가정에서의 평등의 특칙 등의 법리들과 헌법재판소가 남성만의 징병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유 등을 활용해 논리를 구성했고, 특히 지난 2월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와 함께 받아낸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법무부 공고에 대한 위헌결정’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 시민단체들, 학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공개변론신청을 할 예정인데, 모조록 수용되어 국민 앞에서 오탈제도의 위헌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Q. 교사 출신이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교육계와 관련된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가.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이혼, 부동산, 사기, 주식 등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고, 농담 반으로 주변에 떠인 돈도 받아다 준다며 사건 내놓으라고 하지만(웃음), 교육 사건 의뢰가 많긴 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거의 매달 수입하고, 교사나 학교를 대리하는 사건도 많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육을 비롯한 공법 분야의 소송이다. 앞서 ‘나의 변호사’를 언급했는데, 로스쿨 재학 중 그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해 받아낸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며 감탄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이번엔 내가, 법무부 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며 떨 듯이 기뻐했다. 고(故) 긴즈버그 미 대법관에 관한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다큐 <나는 반대한다>를 여러번 봤다. 공법 소송은, 긴즈버그처럼 “나는 반대한다”며 법을 무기로 그릇된 제도에 맞짱을 뜰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현재, 오탈제도 외에도,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호봉제도, 대학입시에서의 상대평가제도, 법을 위배한 전문상담교사 선발 공고 등에 관하여도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데, 모두 인용돼 교육계와 노동계가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다. 공익신고도 많이 다루는데 부족하지만 과거 내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특별한 사명감으로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덧붙일 게 있다. 교육 전문성 때문에 ‘로스쿨의 모범 케이스’란 얘기를 듣는데, 그게 아니다. 예컨대, ‘상치교사’는 일반 변호사에겐 용어조차 낯설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은데, 이건 로스쿨 교육 때문이 아니라 교사 출신 및 교육청 근무 경험 때문이다. 로스쿨 교육이 초기와 같았다면 나는 로스쿨에서 교육과 법을 접목하며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몇 년의 수험기간 동안 교육에 대한 고민 자체를 멈춰야 했다. 현

재의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법의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을 통해 그 분야 전문 법조인이 되고자 직장을 버리는 선택도 줄고 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재학 중 딱 한 번 로스쿨다운 교육을 받기는 했다. 리걸클리닉 수업의 교수님께서 전공분야별로 팀을 만들어 그 분야에서 개선하고 싶은 제도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다. 그때 우리 팀은 내가 교사 시절 너무도 바꾸고 싶던 교육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 필드에 나가면 꼭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셨다. 며칠 전, 바로 그 교육제도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슴이 뛰었고, 반드시 성공해 교수님께 연락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딱 그때 뿐이었다. 낮은 합격률은, 로스쿨에선 리걸클리닉 수업조차 무너뜨렸고, 현재의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 기관은커녕 그저 값비싼 고시학원이나 고시원에 불과하고, 이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

**Q. 제도가 개선되고 법률이 제정돼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A.** 학교폭력은 경쟁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아닌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또래그룹에서 소외됐다고, 남자친구가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갑자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까지 한다. 그러면서, 약한 고리를 건드린다. 학생운동선수는 1호 조치만 나와도 출전이 정지되며 대학입시가 흔들리고 진학과 진로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생명과도 같은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생채기를 내려고 신고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신고만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 교육적 해법도 존재하는데 신고와 처벌만을 지향하는 요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은 곧 교사의 수준임을 절감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에 앞서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하고, 한편으로 선생님이 또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것 같다.



SBS 모닝와이드 출연 - 2012년 오마이뉴스에 교직매매업체의 사기 등을 고발하는 단독 기사, "1억 2천만원이면 돼요...교사직 매매 현장 가보니"를 쓴 뒤, 관련해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는 실형이 부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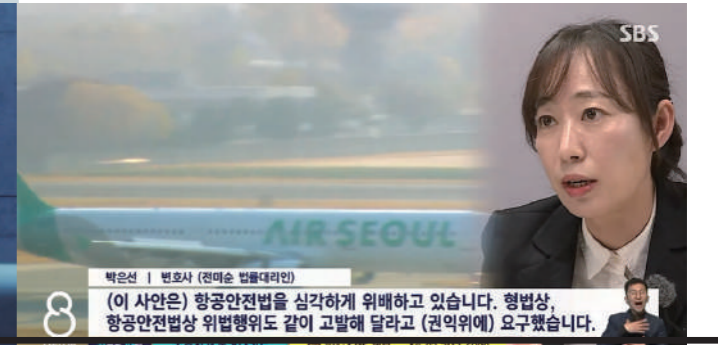
즘의 학교가 안타깝다. 학폭위의 중재 프로그램이 현실화되고, 위클래스 등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Q.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현실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A.** 교사 지인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탈출했냐, 명퇴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교권이, 십여 년 전의 내겐 '권위'였는데 지금은 '생존권'인 듯하다. 그리고 여기엔,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학교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 주체들 간 갈등과 이견이 상존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특별하게 취급될 필요도 있다. 서이초 사건 전후 31개 법안이 발의됐고,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이 현실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교육 주체들 간 갈등



SBS 뉴스브리핑 출연 -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현황과 대안에 관해 발언.



SBS 끝까지 판다 인터뷰 - 에어서울 부기장의 공익신고 사건 법률대리인으로서 발언.

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되도록 할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가는 장치가 가동되어야 할 것 같다.

**Q.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활동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여기에 육아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가끔 법정이나 방송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엄마의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줄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나 나의 힘인 것 같다. 백프로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좋은 엄마만큼 멋진 엄마이고 싶다. 로스쿨 시절 공부와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인생의 과제였다면, 지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최대 과제다. 균형을 잃지 않고자 매 순간 노력해야 할 것 같다.

**Q. 향후 계획은?**

**A.** 부끄러운 교사였지만, 그럼에도 교육은 언제나 내 인생의 중요한 화두다. 교사 시절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교직매매업체를 잡입 취재해 고발 기사를 쓰기도 했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쟁교육의 폐해를 말하기도 했다. 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상을 반납했었지만, 입시부정에 관

해 공익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고충을 겪은 경험도 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죄책감에 잠 못 있을 때도 있지만, 부끄럽다고 숨기보단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 삶에서 모순과 위선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로스쿨 개혁을 외치다가 변호사가 되니 변호사 적게 뽑으라고 해선 안 되고, 경쟁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주대 로스쿨의 존경하는 신용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를 자주 새긴다. 열정이 차오르면 일단 덤벼들며 살아온 면이 있는데,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책임 있는 삶, 때론 포기할 줄 아는 삶도 필요한 것 같다. 나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믿어주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이 기도를 새겨야 할 것 같다.

## 특별임상법학 강의를 수강하며



이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이현아입니다. 저는 지난 2023학년도 1학기에 「특별임상법학-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강의(이하 ‘특별임상법학’)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특별임상법학을 수강하며 법률구조 상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실제 형사사건의 서면도 직접 작성하는 경험을 하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 1. 특별임상법학을 수강한 계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부터 막연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부 과정을 거치며 이 막연한 바람을 ‘변호사’라는 진로로 구체화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생각보다 더 정신없고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법학 공부에 끌려다니는 사이에, 친구들과 배달 음식을 먹고 바삐 떠드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점점 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방향을 잃었던 저는 1학년 1학기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1학년 여름방학에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했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의 실무수습과 1학년 겨울방학을 풍족히 채워주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의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제게 ‘어떻게 법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두 곳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저는 제가 교과서나 사례집에서나 만나는 가상의 사례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어디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일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후회 없이 다할 때, 그리고 결국 그를 돕는 것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때 가장 큰 행복감과 더불어 가장 강한 동기부여를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학마다의 실

무수습은 제가 다시 방향을 잡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법학 공부의 기쁨이었습니다.

특별임상법학은 실무수습에서 얻는 행복감과 동기부여를 학기 중에도 놓지 않고 싶었던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실무수습의 유일한 단점은 방학이 끝나면 실무수습도 끝나는 것인데, 특별임상법학을 수강하면 학기 중에도 계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건을 접하며 바쁜 학기 중에도 스스로에게 꾸준히 강한 동기를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상법학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는 2023학년도 1학기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 2. 첫 번째 과제: 법률상담

특별임상법학 수업은 크게 두 종류의 과제 수행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공익법률센터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상담’이었습니다. 학기 초 함께 특별임상법학을 수강하는 학우들 간에 미리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공익법률센터에 들어오는 법률상담 사건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자취방의 가계약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민법> 수업에서 다루는 판례들의 기상천외한 사실관계에 비하여 훨씬 단순한 사실관계였지만, 당사자의 입으로 말하는 사실관계를 법의 언어로 정리하고, 너무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명확한 판례 법리조차 없는 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례에만 익숙해져 있던 지난 날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가 일생 일대의 문제라는 생각에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법률상담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의뢰인을 대면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는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것과 별개로 법률상담 진행 중에 의뢰인이 툭툭 말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끼어있기도 했고,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실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 흐르듯 지나가는 의뢰인과의 대화 속에서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순발력은 지금껏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또는 주어진 기록만을 보고 서면을 쓸 때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에 다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일반 상담에 비해, 법률상담은 의뢰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최대한 풍부히 전달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상담만의 고유한 특징에 대하여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법률상담이 끝난 이후 다른 수강생들과 각자 진행했던 법률상담에 관하여 공유하는 시간도 흥미로웠습니다. 수강생들이 다뤘던 임대차 분쟁이나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건 등 민사와 형사를 가로지르는 일상 속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법’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정말 가까이 있는 것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판례 공부는 물론, 가까이 있는 소소한 법적 분쟁과 그 대응에 관한 공부도 틈틈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3. 두 번째 과제: 법률구조 서면 작성

두 번째 과제는 공익법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두 사건(형사/민사)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참여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서면(변론요지서)을 작성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인권과 관련하여 접한 사건들은 대부분 장애 당사자가 피해자인 사건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론함으로써 장애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이 애초에 의뢰인의 장애라는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제게 마치 곳곳에서 단서를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방탈출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단순히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 당해 휠체어의 회전 반경 범위를 찾아내 전동휠체어의 이동방식의 특성상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논증하는 것은 다소 도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면 안팎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찾고 그 증거들을 엮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과정이었을뿐더러, 정해진 답이 있는 일반적인 수업이었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서면을 작성한 이후 변호사님들의 꼼꼼한 피드백을 들으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건에서 서면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에 관한 꼼꼼한 파악 못지않게 해당 사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언어로 구성된 법률서면도 결국은 사람의 일에 관한 것임을, 그리고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에 맞춰져 정립된 판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의 목소리를 법정에서 제대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 4. 나가며

첫 A/F 학기, 민법과 회사법의 학기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2학년 1학기를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질게 남은 것은 특별임상법학 수업이었습니다. 특별임상법학 수업이 있었기에 지난 한 학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차고,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처럼 특별임상법학 수업을 제대로 즐기며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저희 수강생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특별임상법학 수업에서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과 좋은 법률상담, 좋은 서면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경험이 질게 남아, 저는 지금 공익법률센터의 조교로 활동하며 그 따스하고 강한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사랑해요♥



정효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 일본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에서의 해외 실무수습 후기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정효영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영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학년 1학기에는 엔터테인먼트 법 수업을 매우 흥미롭게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로펌의 해외 실무수습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II. 기관 소개

그렇게 8월 17일-8월 30일 2주간 일본의 로펌 ‘바스코 다 가마’로 실무수습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도쿄의 중심지인 아카사카에 위치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화 제작사,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저 포함 2명,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 3명이 바스코 다 가마에서의 실무수습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학생도 실무수습에 와있었는데, 한국 실무수습생들과는 과제와 프로그램이 달랐지만, 외부 기관에 방문할 때는 항상 동행했습니다. 한국 실무수습생들을 담당하신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님은 한국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시기도 하셨고, 한국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셔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여러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등을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실무수습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III. 실무수습 프로그램

•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

첫날에는 로펌에 계신 일본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하고 명함 교환을 했습니다. 외부 기관 방문 시에도 항상 첫인사를 하며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실무수습에 가기 전, 이전에 다녀온 선배의 조언으로 미리 명함을 만들어 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함 교환은 일본의 중요한 비즈니스 매너라고 합니다. 또 명함을 받으면 감사 메일을 보내는 것도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라고 담당 변호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기간 동안 외부 기관을 방문한 후에는 항상 방문에 대한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관 방문

실무수습 기간 동안 법원, 영화 제작사, 배급사, 웹툰 제작사,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할 기관 및 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고 질문할 내용을 준비해 갔습니다.

① 처음으로 방문한 기관은 넷플릭스, 애플TV 등의 해외 작품의 일본 현지 제작을 주로 하고 있는 영화 제작사였는데, 해외 제작사와 계약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스태프들의 노동 문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작사에서 일본 현지 촬영에 대하여 일본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두 번째로는 ‘전지적 독자시점’,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의 유명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웹툰 제작회사에 방문했습니다. 대표님은 한국분이셨는데, 직접 만화/웹툰의 판권 계약 및 수익 분배구조에 대하여 그림까지 그리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은, 서점에서 3개월간 팔리지 않는 책은 반품되는데 이러한 재고들도 재산으로 취급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해서는 처벌 시에 속지주의를 적용하는데 주로 관련 법이 전혀 없는 국가에 서버를 두어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③ 글로벌 영화 제작·배급사인 소니 픽처스에 방문했을 때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내 변호사님께서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작, 배급 관련한 업무뿐 아니라 개인정보관리, 광고 규제, 등기, 하청 계약, 라이선스 계약, 광고 계약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본을 어느 나라 언어로 할 것인지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④ 후지TV의 보도국에 방문했을 때는 보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실명으로 보도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중점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지TV 내에 있는 MBC 지국도 방문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니 픽처스, 후지TV, 후지TV 내 MBC 지국에서

⑤ 마지막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에도 방문했는데, 팬클럽 비즈니스 및 아티스트 관련 권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도쿄의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및 가정재판소, 그리고 변호사회관도 견학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변호사회관의 구내식당이 매우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식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과제 및 자료

작은 과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크게는 실무수습 기간 중 두 개의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웹툰 및 출판 업계의 계약 방식과 수익 분배구조,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하여 일본어로 정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과제였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명칭과 초상을 오로지 이용하여,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무단으로 잡지를 출판했을 경우/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잡지를 출판했을 경우를 나누어 아이돌이 소속된 한국의 연예 기획사가 어떤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청구의 근거는 무엇인지,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판례를 1학기 엔터테인먼트 법 강의에서 배운 적이 있어 과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참조하여 과제를 했는데 아직 1학년이다 보니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판례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를 작성할 때는 일본의 법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헤매기도 했는데, 일본 실무수습생에게 판례 찾는 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며 일본의 경우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담당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저작권 관련 논문 및 기사, 현재 일본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차니스의 연습생 성 착취 사건 자료 등 유익한 자료들을 보내주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IV. 마치며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사법 체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과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담당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과 회식도 있었고, 기관 방문 전후 실무수습생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오다이바에 위치한 후지TV에 방문한 후, 바다를 배경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인 실무수습생과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고 이자카야에서 식사를 했는데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시 만나길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엔터테인먼트 분야로의 진로를 다시금 새기고 변호사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도 크게 얻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다이바 바다에서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진출자들과 본선 재판부가 경연 전 개회식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회에 임하고 있는 본선 진출자들과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모습.

사내하도급 1명 사망, 정규직 4명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을 약속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원청 소속 외에 하청 노동자들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도 불법이라는 오성제철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현장을 찾았다.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지난 8월 19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본선을 끝으로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제9회 대회는 손잡고(대표 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90명(30팀)이 참가해 서면심사를 거쳐 24명(8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올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해”라며, 시의성 있게 진행되는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 중대재해사업장의 안전문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제9회 대회의 문제는 ‘산업재해와 안전문제를 근로조건으로 원청과 하청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가정했다.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과 효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 즉 누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신원보증인 손해, 부진정연대책임 등과 관련한 가상의 사례가 출제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체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 목적의 정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쟁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서 공동교섭이라고 하는 방식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팀에게 평가가 더 갔다”며, “대부분 ‘공동교섭’이라는 함정에 빠져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핵심적 쟁점을 놓쳤다”며 순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을 설명했다.

### ※ 제9회 대회 수상팀(수상자)

구분	선발팀	시상내역	수상
최우수상(국회의장상)	1팀	300만원	고려대(김성욱, 손효유, 김민혁)
우수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1팀	200만원	성균관대(조하경, 윤혜정, 황신아)
장려상(민주노동법률원장상)	1팀	100만원	성균관대(곽영출, 김동현, 이동준)
장려상(한국노동법률원장상)	1팀	100만원	서강대(김태원, 권승현, 이다현)
입상(노란봉투법상)	4팀	각 50만원	한양대(김보석, 김기훈, 정진혁) 고려대(김효빈, 김예지, 이예희) 서울시립대(허성희, 김도훈, 이하얀) 연세대(강우승, 이정진, 김지민)

#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국회의장상) 수상팀

고려대학교 김성욱, 손효유, 김민혁



**Q.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A.**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여서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팀들의 서면을 보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고 팀원들과 참가에 의의를 두자고 서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너무 기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

안 밤까지 새어가며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Q. 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팀은 고려대 법전문 15기 김민혁, 김성욱, 손효유로 구성되었으며, 법학전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처음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저희 셋 모두 지난해 면접스

터디를 함께 준비하며 가까워지고, 다 같이 학교에 입학하며 자연스럽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회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팀원들 모두 평소에 노동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관심이 많았나요?**

**A.** 방학 때는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에서 벗어나, 인턴·대회 등 변호사 실무를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손효유)와 김성욱 학우가 먼저 교내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대회 소식을 접한 뒤 저희 세 명이 팀을 구성하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민혁 학우에게 제안 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 모두 노동법에 대해 처음부터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파업’ 등은 학부 수업을 통해서나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소재이기에 해당 법리에 대해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Q. 이번 경연대회의 문제는 ‘산업재해와 안전문제를 근로조건으로 원청과 하청의 교섭’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서면 심사를 준비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저희 팀은 모두 1학년이었던 만큼 대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제대로 해석하고,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과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법전부터 주석서, 판례, 논문, 뉴스 기사까지 모든 자료를 다 읽어보느라 시간을 더욱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기존 판례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중에도 서로 독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 상대 팀들의 서면을 받았을 때 다들 너무 잘 쓰셔서 저희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고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상대 팀에서 서면을 잘 써주신 덕분에 그걸 열심히 방어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면상으로나마 상대 팀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Q. 서면 심사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인가요?**

**A.** 서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사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씩이나마 모두 포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심사위원장님께서도 최종 심사평에서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공동교섭’이라는 쟁점에 몰입하였고,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한 다른 논제를 놓치는 경향이 많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산업안전보건 의제’, ‘손해배상의 범위’, ‘신원보증인의 연대책임’과 같이 다양한 쟁점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포섭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을 작성하면서 조그마한 논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는 먼저 문제 상황을 요약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공유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다루어야 할 쟁점에 대한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뒤로는 세부 쟁점별로 각자가 생각하는 주장과 논거를 추가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교차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제출 당일에는 아침부터 모여 전체적으로 어색한 문장과 단어는 없는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본대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나요?

**A.**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구두변론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구두변론은 준비서면 제출 후에 1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그 기간동안 (1) 주 변론 내용을 ‘듣기 편한 형태’로 정제하고, (2) 재판부 질의 및 재변론에서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쟁점별 주장을 토막글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주 변론의 경우는 PPT를 사용할 수 있는데 7분이라는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보다는 저희측 주장의 논리 전개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준수 및 안정적인 전달이 중요했기에 성육, 민혁이 맡아 준비했습니다.

재변론의 경우에는 미리 써온 원고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상대측이 주변론에서 언급한 부분에 맞추어 순서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답변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 변론과는 달리 시각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재판부 및 상대측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해당 쟁점에 대한 상대측 주장을 간략히 언급해준 뒤, (2) 저희의 주장을 ‘주장-근거’ 형식으로 설명했고, (3) 근거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첫째, 둘째’ 등의 표지를 사용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 때 토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던 효유가 맡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구두 변론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반복해서 리허설을 해보았고, 실제 대회에서도 발표자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트북 화면에 스탑워치를 켜놓았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창

원고 서면을 작성하다 피고 서면을 작성하려다 보면, 방금까지 스스로 작성했던 논리를 그대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박해야 하는 상대 팀의 논리가 정말 타당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Q. 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팀원들의 향후 계획도 알려주세요.

**A.** 아무래도 로스쿨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조금씩 배분하여 학기 중 틈틈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행비로 지출한 팀원도 있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밥도 사다 보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 제10회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10회 노란봉투법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원우님들이 계시다면, 꼭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도 출전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텐데, 사실 저희 셋도 노동법은커녕 민법의 불법행위 수업도 듣지 않은 로스쿨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토론하다 보면 서면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할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또, 노란봉투법 대회는 예선을 통과하면 저희 측 서면뿐만 아니라 상대측 서면도 송달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서면의 논리 전개나 구성을 보며 서면 작성 방법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친 쟁점 등에 대해 교차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대회 준비 자체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접수기간 : 2023. 9. 18.(월) 09:00~22.(금)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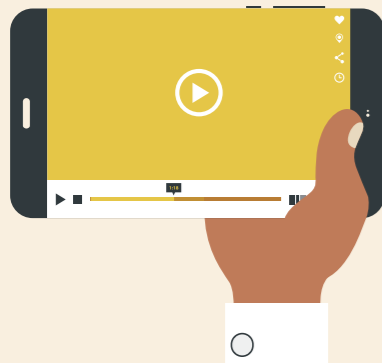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전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212	18	230	230				5.73	6.00	5.75	<b>5.75</b>	6.08
건국대	37	3	40				40	124	15	139				139	3.35	5.00	3.48				<b>3.48</b>	3.4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333	28	361	347	24	371	732	6.05	5.60	6.02	6.20	6.00	6.18	<b>6.10</b>	5.38
경희대	55	5	60				60	259	21	280				280	4.71	4.20	4.67				<b>4.67</b>	5.77
고려대				111	9	120	120				330	42	372	372				2.97	4.67	3.10	<b>3.10</b>	2.85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79	33	412	406	26	432	844	10.24	11.00	10.30	10.97	8.67	10.80	<b>10.55</b>	10.66
부산대	55	5	60	56	4	60	120	225	28	253	240	24	264	517	4.09	5.60	4.22	4.29	6.00	4.40	<b>4.31</b>	3.88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8	10	208	233	9	242	450	11.00	5.00	10.40	12.26	9.00	12.10	<b>11.25</b>	7.88
서울대	139	11	150				150	323	50	373				373	2.32	4.55	2.49				<b>2.49</b>	2.76
서울시립대	45	5	50				50	163	42	205				205	3.62	8.40	4.10				<b>4.10</b>	4.56
성균관대				111	9	120	120				251	27	278	278				2.26	3.00	2.32	<b>2.32</b>	2.3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95	16	211	198	20	218	429	8.48	8.00	8.44	8.61	10.00	8.72	<b>8.58</b>	6.64
연세대				111	9	120	120				310	52	362	362				2.79	5.78	3.02	<b>3.02</b>	2.57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383	43	426	422	24	446	872	11.97	14.33	12.17	12.79	12.00	12.74	<b>12.46</b>	11.21
원광대	30		30	25	5	30	60	796		796	620	72	692	1,488	26.53		26.53	24.80	14.40	23.07	<b>24.80</b>	22.25
이화여대				92	8	100	100				252	24	276	276				2.74	3.00	2.76	<b>2.76</b>	3.07
인하대	21	4	25	25		25	50	123	23	146	164		164	310	5.86	5.75	5.84	6.56		6.56	<b>6.20</b>	5.76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21	44	265	260		260	525	4.33	4.89	4.42	4.33		4.33	<b>4.38</b>	3.92
전북대	37		37	37	6	43	80	245		245	283	38	321	566	6.62		6.62	7.65	6.33	7.47	<b>7.08</b>	6.28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145	10	155	149	3	152	307	8.06	5.00	7.75	7.84	3.00	7.60	<b>7.68</b>	8.18
중앙대	46	4	50				50	414	28	442				442	9.00	7.00	8.84				<b>8.84</b>	7.0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235		235	211	29	240	475	4.70		4.70	4.91	4.14	4.80	<b>4.75</b>	5.18
충북대	40		40	25	5	30	70	152		152	74	19	93	245	3.80		3.80	2.96	3.80	3.10	<b>3.50</b>	4.10
한국외대	46	4	50				50	196	19	215				215	4.26	4.75	4.30				<b>4.30</b>	3.64
한양대				93	7	100	100				190	11	201	201				2.04	1.57	2.01	<b>2.01</b>	2.22
합계	835	67	902	1,013	85	1,098	2,000	5,109	410	5,519	5,152	462	5,614	11,133	6.12	6.12	6.12	5.09	5.44	5.11	<b>5.57</b>	5.24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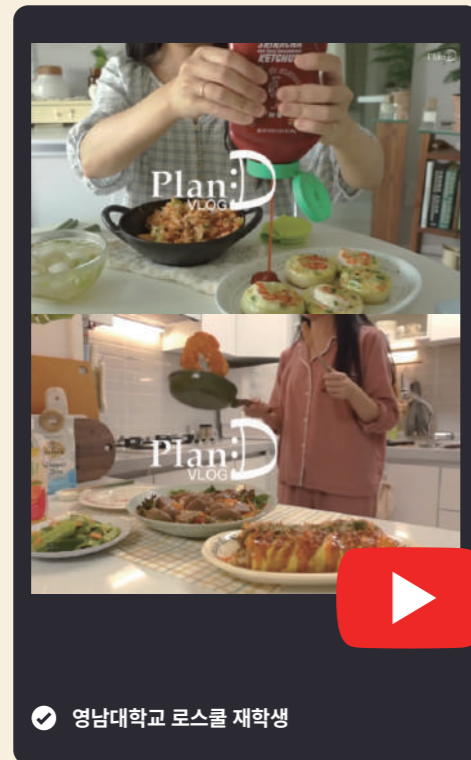
# 유튜브 유튜브 뭐 봄?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타의 올해 3분기  
100대 브랜드 평가 결과,  
‘유튜브’는 5위를 차지했다.  
2020년엔 44위권에  
머무르는 데 그쳤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브랜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어떤  
채널을 즐겨보는지 물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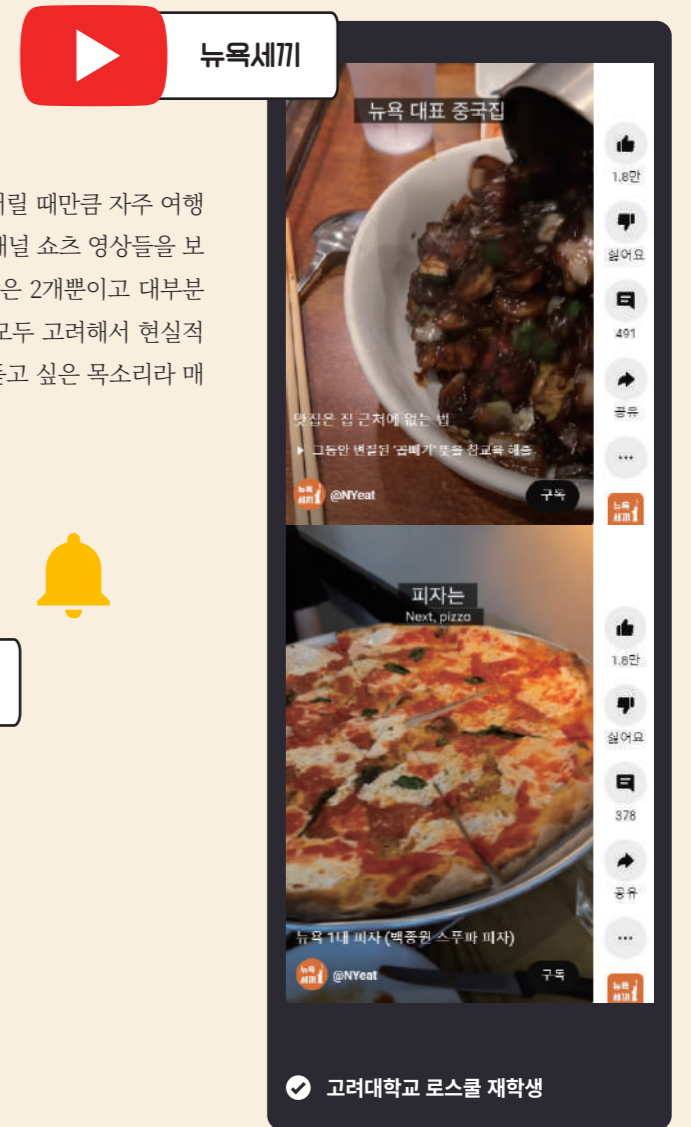
빨간 안경으로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나 책을 리뷰해 주거나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채널입니다. 편당 30~45분 분량으로 자기 전에 한편씩 보고 잘 수 있을 만큼 길이도 적당합니다. 영화의 리뷰를 보면 그 영화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고, 저에게는 지난한 로스쿨 생활의 심포 같은 채널입니다.



Plan D

영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머리 식힐 때 보기에 적합한 채널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 좋아하시는 학우분이라면 틀림없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특이한 음식을 해 먹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고, 열심히 사는 플랜디님 보면서 동기부여도 됩니다 ㅎㅎ 공부에 지친 학우님들! 지하철에서 머리 식히고 싶으실 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뉴욕세계

핑계고

고려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해외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공부 시간, 체력 한계 등의 이유로 어릴 때만큼 자주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데요. 세계 여러 곳의 유명 식당 리뷰를 해주는 이 채널 쇼츠 영상들을 보면서 자주 대리만족을 느끼고 리프레쉬를 하고 있습니다. 긴 동영상은 2개뿐이고 대부분이 쇼츠라 정말 잠깐씩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맛, 위치 등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리뷰해주시고, 목소리도 뭔가 라디오처럼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라 매력 있는 채널, 영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핑계고(채널명 '뽕뽕')라는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핑계고는 MC 유재석과 게스트들이 근황 토크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인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찐친들의 대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영양가 있는 정보는 거의 없고ㅋㅋㅋ 그냥 지인들과 수다 떠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생각 없이 틀어두고 킁킁거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편은 '송은이 · 김숙'이 나온 '이열치열은 핑계고' 편입니다.



▶ 강형욱의 보듬TV

경희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개통령(애견인들의 대통령)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로스쿨 학우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형욱 훈련사가 다양한 견종에 대한 특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회차의 게스트는 '강아지' 푸들, 말티즈, 비숑 등 여러 견종을 소개하고, 훈련 방법, 견종별 양육 난이도 등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애견인이 아니더라도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시간 순식! 귀여워서 심쿵사 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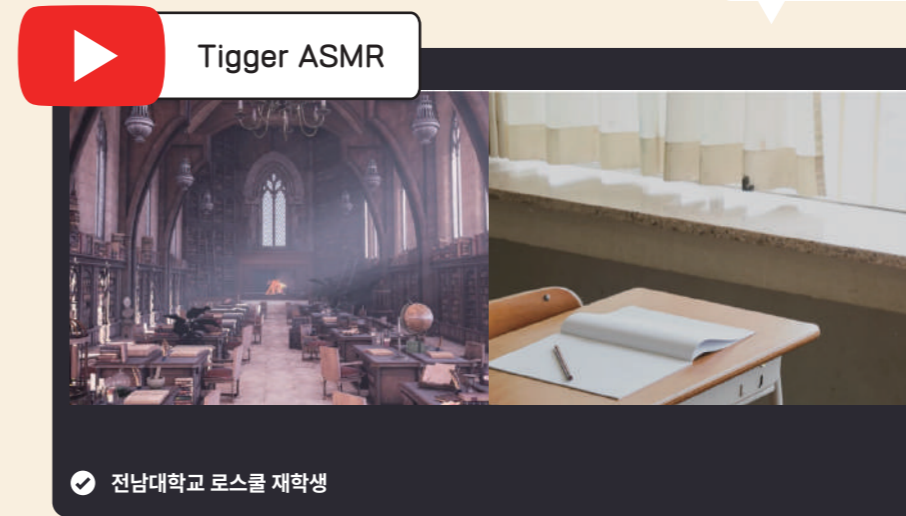


구독자 97만 명의 타로 맛집입니다. 타로점을 봐주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 가운데 제가 엔젤타로를 구독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풀이 때문인데요. 운영자님이 '10월 운세', '조만간 잘될 예언 3가지', '기대해도 좋을 일' 등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신 등을 믿지 않아도 재미와 심심풀이로 보기에 적합합니다. 로스쿨 학우님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해요!

▶ 엔젤타로



한양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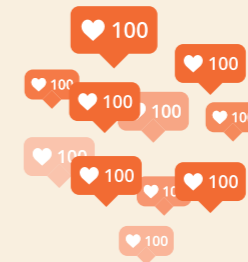


▶ Tigger ASMR

전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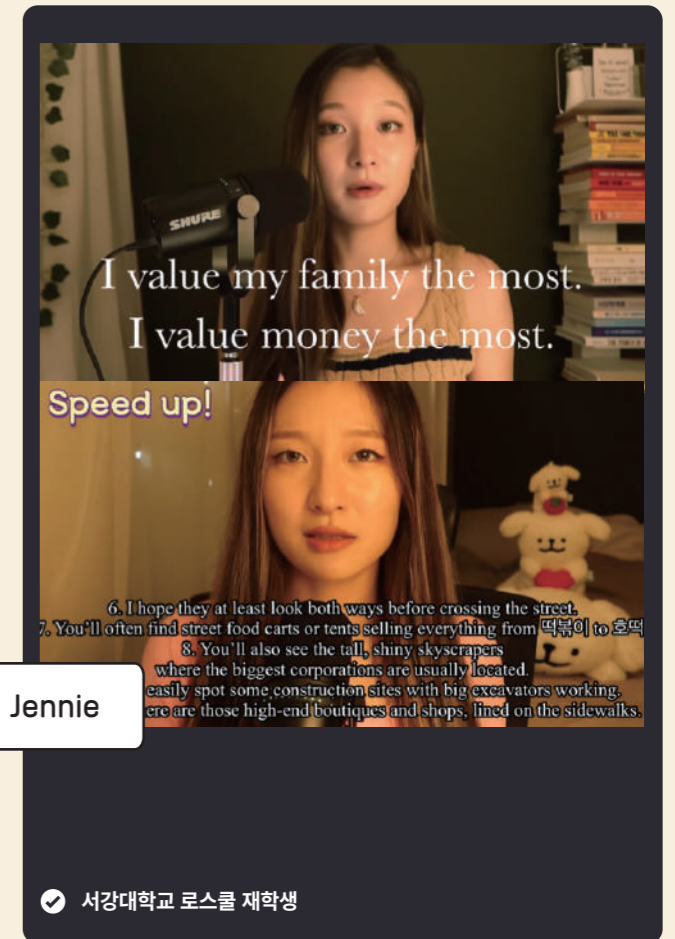


Tigger ASMR 채널은 공부, 집중, 휴식, 명상을 돕는 ASMR 채널입니다. 공부할 때 틀어놓으면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의 경우엔 온종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그레이트 홀에서 자습하기' 영상인데요. 해리포터에 한 번쯤 빠져봤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영상도 좋아할 겁니다. 마치 해리포터 마법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책 넘기는 소리, 문이 여닫히는 소리 등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미약한 소음이 중간중간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다고는 하지만, 모의고사에 변호사시험 준비까지 빠센 일정 속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고갈 때 가볍게 보면서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유튜브 채널 <헬로 제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헬로 제니는 평범한 20대, 토종 국내파 제니님이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려주는 채널인데요. 영어 표현부터 공부 방법 등을 5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배울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시청하기 좋아요.

▶ Hello Jennie



서강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이미지는 각각의 유튜브 채널에서 캡처함.

## 로펌탐방\_법무법인 민주

### “팀플레이 가능한 정통 로펌 지향” 특화된 분야의 업무 수행 가능



**Q. 법무법인 민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민주는 2001년 개인법률사무소로 시작하여 ‘국내 최고의 로펌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2004년 법무법인 민주로 전환했다. 고객들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년 만에 변호사 50여 명의 규모와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만도 50여 건을 받아낸 괄목할 만한 기록을 세운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법무법인 민주는 변호사들의 우수한 능력과 유기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전 분야에 걸친 One-stop Total Service로 고객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인 운영체제와 더불어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도전 정

신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Q. 신입 변호사 채용 과정과 평가 기준은?**

**A.** 1차 서류접수를 통해서 면접을 볼 신입 변호사를 채택하고 2차로 팀장 변호사들과 대표변호사의 면접을 보고 최종 협의하여 선발한다. 1차 서류접수는 로스쿨 학점 및 변호사시험 합격점수, 자기소개서로 평가한다. 2차 면접에서는 1차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인성 및 태도,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Q. 법무법인 민주만의 인재상은?**

**A.** 법무법인 민주는 탁월한 전문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 정신으로 고객을 만족

법무법인 민주는 스펙보다 도전정신을 중시한다. 지원자들의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 정신, 윤리의식, 창의성과 유연함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이다. 지난 20년간 법무법인 민주는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으로 로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선발해왔으며, 그 까닭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시키고, 법무법인 민주를 최고의 로펌으로 만들어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인재를 원한다. 법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또 구성원들과 원활히 협력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윤리적 행동과 직업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 있는 분이면 좋겠다.

**Q. 입사 이후의 팀배정과 전문 커리어 개발 과정은?**

**A.** 전문분야별 팀이 나뉘져 있는데, 그 특화된 분야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각 소속 팀에서 전문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 여의도 IB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PF, 인수금융, 항공기/선박 금융, SOC, 각종 구조화 프로젝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반포 사무실은 기업법무, M&A, 소송중재, 금융, 건설, 도산, 부동산, 형사, 인사노무, 중대재해, 국제거래, 국방방위산업, 지적재산권, 관세 등 전문팀이 여러 분야별로 구성돼 있으며, 특화된 분야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

**Q. 법무법인 민주만의 특별한 정책이나 문화도 소개해달라.**

**A.** 매년 8월 말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변

호사 리더십트레이닝을 개최하여 친교 및 협동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봄·가을 2회 월요골프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골프 연습장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오후에 판례 회의를 통해 서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한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 문화를 강조하여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Q. 신입 변호사의 급여 및 복지제도는?**

**A.** 중견 로펌 규모에서 지급하는 처우보다는 더 나은 급여와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 급여는 기본급에서 사건 수행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계, 동계 휴가는 변호사들이 따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다.

**Q. 법무법인 민주에 입사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선배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국내 대다수 로펌이 파트너별 별산제 로펌이지만, 법무법인 민주는 팀플레이가 가능한 제대로 된 정통로펌을 지향하다보니 팀별로 팀장변호사가 어췌변호사를 코칭하고 협업한다. 로펌에 지원할 때는 각 로펌 내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로펌의 성장성과 자신의 성장 가능성 등을 모르고 엉뚱한 로펌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유념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로펌탐방\_법무법인 민주

###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편이 되는 사람”

#### 김진기 변호사

1995년 육군본부에서 검찰관으로 법무관 생활을 시작한 김진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육군고등검찰부장 및 육군군사법원장, 합참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28년간의 법무관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현재 법무법인 민주에서 변호사로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Q.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 ‘군법무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A.** 진로를 고민할 당시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종래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전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관련자들이 대규모 전력증강사업 비리를 저지른 ‘울곡비리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때 젊은 법조인들은 이런 비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익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Q. 군에서 28년 복무했으니 많은 사건을 접했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2008년 육군 고등검찰부장을 할 당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형사입건하여 구속해 놓고 보니, 피해자만 750명에 피해 금액만 400억에 달할 정도였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상당수가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시 육군본부 본청 지하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장과 협의하여 제3금융권에서 국민은행으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속수사 개시 후 10여 일이 지나고 나니 피해자들의 아픈 사연이 속속 드러났고, 군에서는 3개월 후 50%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피해자도 납득할 수 없고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는 아니므로 진급,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피해자들의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임충빈 육군참모총장께 피해자 지원대책반 설치를 요청했고, 드라마틱하게 법무, 재정, 심리, 인사 등이 포함된 피해자 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했다. 임충빈 총장님은 전역하신 후에 보였을 때도 ‘그때 피해자 대책반은 정말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신다. 지금 생각해 봐도 수사도 수사지만, 수사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사기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상담, 재정 등의 피해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Q. 군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A.**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감출 수 없다. 군은 나름대로 사건을 합리적·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군과 민간·언론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군인들의 경우 임무의 성패, 전투에서의 승리 등 늘 결과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민간과 언론은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이처럼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군이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또 보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군 관련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 없지 않다. 결코 은폐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안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기밀성을 존중하여 보호하

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개해 영원한 비밀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역사와 진실을 두려워하며 기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Q. 군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개선방향은?**

**A.** 군사법제도의 범위를 군형사사법제도·군수사재판으로 한정한다면 여전히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더 고민할 지점이다. 그리고 군내 징계가 대단히 많은데 그 많은 징계가 법치주의에 따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군징계를 군사법원 업무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징계항고만이라도 기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와 징계항고법원을 선택해 항고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겠다. 종래에는 군사법원을 전체 사법질서로서의 보편성 추구에 방점을 두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보편성에 근거하되 군사법원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민간법원과 병행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충분히 리뷰하고 분석하면 좋겠다. 군사법원을 단순히 군인 재판기관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향후 논문 등의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제시하려 한다.

**Q. 전역을 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에서 특강을 마치고

**선택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A.** 군대는 윗 계급이 전역해야만 후배의 진급이 가능하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2019년 말 갑자기 유고가 된 고등군사법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의 받았는데 하루 정도 생각해 보니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전역하게 됐다. 무엇보다 2019년 9월 「정부조달법 이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신감도 있었고 나가서 부딪혀 보고 싶었다. 그렇게 갑자기 전역하게 됐다.

**Q. 현재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군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나?**

**A.**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은 28년간 군법무관으로 해 왔던 분야이니 여전히 주된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는 조달 분야를 특별히 많이 하고 있다. 조

달 분야는 크게 물품구매, 용역조달, 건설조달로 나뉘는데, 건설조달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건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방산조달도 당연히 포함된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방산분야로는 예컨대 크게는 최신 대형 잠수함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작게는 병사들의 컴벡서즈 납품 분쟁에도 참여하고 있다. 건설로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자문도 하게 되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설업체의 추가공사비 청구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도 대리한다. 조달분야는 흔히들 공공계약분야로 말하는데, 법조인들이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해 볼만한 분야이다.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에서 이 분야와 관련한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지출의 50%는 정부조달로 집행되는 만큼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

**Q. 군법무관의 삶과 변호사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A.** 변호사로 활동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다.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야 하니 공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부족하다. 하지만 공직에 있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니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웃음). 그리고 자주 다짐하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변호사들이 돈 잘 번다는 말이 옛말인 것은 상식이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자주 많이 벌지 않냐는 부러움과 질시가 흔해진 이야기를 듣곤 한다. 개업하고 2년 정도 된 시점에 잘못하면 변호사가 매달 계약액에 일희일비하는 보험설계사(전혀 폄하할 생각은 없다. 어머니도 보험설계사로 일하셨다)와 다를 게 없어진다. 좀 더 공적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공적인 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변호사로서 스스로 지속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열심히 역량을 발휘하여 경제적으로도 우뚝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력이 되는 만큼 많은 사회활동을 한다.

**Q. 의뢰인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변호사님만의 철학은?**

**A.**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편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사건과 삶에 내가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동화돼야 하는데, 그때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대단히 힘들다. 하지만 충분히 감정이입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동화되되 최대한 빨리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사건을 끌고 가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끌려가게 된다. 한 피의자를 두고 10여시간 동안 둘(검찰관과 피의자로서) 모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기싸움 하다가 결국 8시

간이 지나서 서로에게 이끌려 자백하고 또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된 적이 있다. 검사와 피의자도 그런데 변호인과 의뢰인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데 (최소한 의뢰인으로서) 마음 깊숙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 과정 후에는 변호인은 신속하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의 아픔까지 이해하고 의뢰인이 말 못할 상처와 흉터를 스스로 제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견해가 갈리는 어느 순간에도 의뢰인 뜻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이끄는 변호인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견 때문에 중간에 사임한 사건도 많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은 이유에 답하는 전문가로서 변호인이 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후배 법조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끈대처럼 보일 수 있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로스쿨 이전의 법조인은 국가시험 하나 합격한 것으로 평생을 살았다. 솔직히 공부 안 하고 사건 있을 때 실무제요, 판례 좀 찾아보고 사건 해결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분만 발체하여 서면에 첨부하기 위해 찾아본 것은 공부 아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실무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 없는 실무는 너무나 맹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문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면 사건을 하게 된다. 몇 사건 하게 되면 드러내 놓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정부조달 분야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중재 등 ADR에도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대법원 판례는 결국 변호사가 바꾸는 것이다. 우리 사법제도는 앞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변해야 하고 변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 젊은 법조인들의 역량과 바람이 충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지금 더 많이 공부하자는 것이다. 로스쿨 마치고 법조인이 되고서도 말이다.

# 하심(下心)의 미학

## 1. 들어가며

로스쿨 재학 시절 [로스쿨 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명한 교수님, 어떤 분야에서 획을 그은 변호사님, 각종 대회 입상자 등 훌륭한 분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서초동 막변’이라 소개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번도 일등을 해본 적 없고, 어떤 분야의 중심도 아니며, 세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꼴등의 이야기이자, 주변의 소리이며, 날 것의 모습입니다.

## 2. 꼴등의 역사

철학 전공자로서 ‘생비법’이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동기 형님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 좋아했습니다. 동기 MT가 있던 날, 날씨가 좋아 수업에 모두 결석했습니다. 교수님도 MT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교 로스쿨 원장님이 되신 교수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네는 내 수업엔 안 들어오고 MT에는 와 있구먼.”

결국 공부 안 하고 놀았던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규 과정 곱절을 보내고 나서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했는데, 저는 665등이었습니다. 합격자 중 중간 석차인데, 수험기간을 남들 2배를 썼으니 꼴등인 셈입니다.

## 3. 법률 사무직원 생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수 로펌 대표 변호사라도 절 채용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전 변호사가 된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블랙’이라고 불리는 몇몇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쉬는 다른 수험생 친구들과 달리 개업을 앞둔 저는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기 전 실무 해 볼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2월 초부터 합격 발표가 나는 4월 말까지 웬만한 실무는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소중했습니다. 일 중독자처럼 일했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사무실 구석에 쌓여있는 기록 봉투에서 서면을 꺼내 읽었습니다. 가방에 늘 법원실무제요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보았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는 일이면 무조건 자원했고, 집행 참관을 위해 지방 출장도 다녔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애주가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업무를 다 보시는 11시까지 기다리

면 30분 정도 작성한 서면을 봐주셨습니다. 빨간펜 첨삭이 끝나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실무 외적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을 지내고 나니 연습용 서면, 보정서같이 자잘한 서면 포함 약 200건의 문서 파일이 생겼습니다.

애주가 변호사님의 별다른 검토 없이 서면이 통과되고 그 서면을 전자소송으로 능숙하게 제출하게 됐을 때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정든 일터를 과감히 떠났습니다.

## 4. 서초동 막변

막상 개업하려니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겐 이미 수년 차 경력이 쌓인 동기 형님들이 많이 있었고, 다짜고짜 빈방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 수습 연수를 받는 한편, 오후쯤 일과가 끝나면 방값 대신 형님들 사건 서면을 썼습니다. 그 생활을 6개월간 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소송대리권이 생겼습니다. 저는 법률 사무직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줄 알았고, 사무직원 시절 습관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변호사-사무직원-변호사-의뢰인’으로 이어지는 업무를 혼자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했고, 각종 수많은 민원을 일선에서 대처해봤기에 ‘변호사님’이라는 존칭까지 써주는 의뢰인 응대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개업 초기 몇 개 없는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저에게 신과 같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막변’은 과거 공직 경력 없이 막바로 개업한 변호사를 얕잡는 말입니다. 이런 유래를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딱히 말씀드릴 경력이 없어서 스스로 ‘막변’이라 소

개했는데, 있는 척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던지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의뢰인은 딱해 보였는지 이리저리 입소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초동에서 개업 변호사로 5년을 버텼고, 전문 분야를 개발했으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빈방을 내어준 형님들과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동료도 더 생겼습니다. 감사한 의뢰인을 만나 전국 최초로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 재심 사건에서 승소했는데, 수원고등법원 ‘우리 법원 주요 판결’ 14개 중 5번째로 게재된 사건입니다. 그 덕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과지만, 이것은 꼴등이 맨땅에 박기 위해서 일군 것이라는 점을 간과 해선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매 순간 가슴 뛰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꼴등에게 과분한 삶입니다. 저는 우연히 얻은 하심(下心) 덕분에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 5. 하심(下心)의 미학

[로스쿨 창] 2023년 1/4분기 과월호에 호문혁 교수님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라는 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특히 칼럼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이 내디딜 땅은 아무데로나 갈 수 있는 드넓은 대지입니다. 여러분은 선로를 벗어나면 큰일나는 기차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법조인들이 기차처럼 길이 있는 곳이 뜻을 두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만드세요.” 부분은 딱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개업 변호사에 대한 각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했던 동기들은 소위 ‘검클빅’이 되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판사, 검사, 대형 로펌 경력이 향후 개업의 필승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관련 경력을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쏟아지고, 심지어 법복과 검사복을 착용한 변호사 광고 사진도 보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독자분이 변호사가 됐을 때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변해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한 번쯤 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로 성공하는 방법은 전문 분야를 개발해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경쟁이 없는 곳이 아래입니다. 가령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능력을 함양한 다음 오히려 영세기업을 주 고객층으로 공략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수요가 있으니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이 내는 소송비용만큼 받기 어려우니 경쟁은 덜 할 것이며, 많은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면 특정 장치 분야에서만큼은 최고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 수임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소위 품나는 사건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에 변호사의 품위는 말은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이 승패를 초월하여 만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잊지 않고 찾아주고, 어떤 분야 최고가 될 수 있으며,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그것이야말로 개업 변호사의 필승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심(下心)이 아름다운 이유는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어도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虛)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고, 실(實)은 달콤한 과육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허(虛)보다 실(實)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돈 빼고 다 가진 부자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가 되고 나면 하심(下心)을 얻기가 무척 힘듭니다. 구구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고 하심(下心)을 얻는 미래 변호사님이 한 분이라도 생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도진수 변호사·변리사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젠	더	갈	등	을	넘	어		
	공	정	한		사	회	로	



**오재호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2015-현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2010-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사회 의제가 된 것은 대한제국을 세웠던 19세기 말 즈음이다. 찬양회(贊襄會)는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이다.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이듬해 9월에 찬양회는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施通問)을 발표하였다.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했던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목구비와 사지오관의 육체에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처럼 사나이가 벌여 주는 것만 앉아서 먹고 평생을 깊은 집에 있으면서 남의 제어만 받으리오..... (중략) ..... 이제는 옛 풍속을 모두 폐지하고 개면 진보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기 여자 아이들을 보내어 각종 재주를 배워 이후에 여성 군자들이 되게 할 목적으로 지금 여학교를 창설하오니,.....

1876년 개회기를 맞아 여성이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 지나 교육 받은 여성들은 평등을 표방하며 7세 이상 여성을 위한 최초의 여자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정부가 나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사회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들어 항일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1927년에 등장한 전국 여성운동조직 근우회(權友會)는 구국(救國) 활동의 틀 안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외쳤다. 그러나 남성중심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두 번째 여성운동은 일제 사찰에 의해 또다시 좌절하였고, 이후 50여 년간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간간히 제한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본격화하였다. 1987년 여성 노동자 차별 대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

치권에 진출한 여성 리더들의 요구에 따라 2011년 여성부를 국가 행정부처로 설립하였다. 1999년에는 여대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군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2005년에는 가부장 제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이후 1994년 성폭력특별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의무화 등등 성평등을 향한 여권 운동의 성과가 법제도로 가시화하였다. 주요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 투표를 거쳐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총여학생회는 남학생 중심으로 학생활동이 이루어진 1960년대에 단과대학 여학생 대표들이 모여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 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았던 당시 총여학생회는 대학 안에서 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해 1990년대 초반까지 활성화하다가 이후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하나둘 사라졌고, 2020년 이후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지난 100여 년에 걸쳐 우리 사회는 여성에 관한 부당한 관습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15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 차별을 곧 여성혐오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집단행동들이 나타났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런 가운데 20~30대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젠더 갈등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있었다. 이들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다른 성장기를 겪었다. 즉, 지금 20대부터 40대 초중반 청년들은 남자를 특별히 선호하지도 않고, 가족 안에서 성차별이나 사회적 성역할이 점진적으로 사라진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세대가 겪었던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성평등을 둘러싸고 논쟁적이었던 대부분의 법제도를 없애거나 개정하고 나서 세상을 맞이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즉 사회적 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졌다. 여성의 권리를 확립하기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측과 성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역차별이 생겨난다는 측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적지 않은 청년들이 왜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며, 젠더 이슈를 의식적으로 회피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일상을 공유하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젠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젠더 갈등의 진원지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중장년들이며, 법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성평등을 실현한 이후에도 성별 우대 프레임이 벗어나지 못하는 4050 세대 정책 입안자들이다.

2030 세대가 민감한 영역은 정작 따로 있다.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젠더 갈등에 무관심하던 대다수 청년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평등과 공정은 하나같이 바른 가치를 표방하지만 평등은 내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공정은 그 형식을 겨냥한다. 남성 혹은 여성이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주장은 평등에 호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의 평등을 말하기는 해도 인권의 공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함께 이룬 성과를 일부가 누린다거나 모두가 누리는 혜택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공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는 해도 평등한 절차라고는 하지 않는다. 성평등을 실현할 때, 남녀가 평등한가를 묻는다면 어떤 차별이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하고, 공정한가를 묻는다면 바로잡는 과정과 방식이 적절한가를 진단할 일이다. 과거 가부장제에서 성장한 세대는 대체로 남자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생업을 전담해야 하며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남녀가 모든 비용을 분담하고 여성도 국방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성별을 막론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더없이 민감하다.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남녀 비율이 역전하였고, 15~20세 남녀 고용률도 어느덧 여성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남녀 간 임금 수준, 경력 단절 등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지위 및 처우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상당하다. 다만, 고용을 비롯한 사회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어 누군가를 우대하는 것을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은 그런 조치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인권을 성별, 세대별, 계층별로 애써 구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되었다. 청년을 위한 나라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따로 없듯 남녀 각각에게 별도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꽤나 어색하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역량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젊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나이가 많아도 심신이 강건하면 기회가 계속 주어져야 한다. 성별 프레임은 보편적 가치를 은폐하는 장막에 불과하다. 정책이나 제도는 시대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지금 청년 남성은 여성을 배려할 만큼 스스로를 수혜자로 여기지 않으며, 여성들 또한 적극적 우대 조치로 기회를 얻어야 할 만큼 자신들을 배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동딸을 둔 70대 지인은 평생 딸을 키우며 ‘모름지기 여자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란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그저 ‘사람이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그는 평상시 평등이나 인권에 그다지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녀가 보편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소신과 철학을 평생 견지(堅持)해 온 듯하다. 인권을 운운하는 모든 의제의 지향점은 실천의 성과와 늘 간극이 크고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남녀 각각의 인권을 내세우기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만 주목할 때도 되었다.

QUIZ

1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대법관의 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면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 ②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③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 ⑤ 교회의 목사 甲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3 乙은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X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서도 이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이중으로 계약하였고, 丙은 乙을 피고로 삼아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본소’라고 함)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소에서 丙이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할 경우 후소 법원은 본소의 기판력에 구속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丙이 본소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피고로 삼아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없다.
- ④ 甲이 본소에 사해방지참가를 하면서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다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 ⑤ 甲이 본소에 사해방지참가를 하면서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를 한다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이다. 의대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보며 의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듯이, 로스쿨생들도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에서 법률상담과 자문, 공익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측면도 있어,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로스쿨 리걸클리닉 “지역주민도 로스쿨 학생도 윈윈”



### 법학 실습 교육방법의 새 지평을 연 ‘리걸클리닉 교육’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1970년대부터 로스쿨 내 리걸클리닉 교육을 활성화시켰고, 그 결과 리걸클리닉은 마치 ‘의과대학병원’ 처럼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특정 사건을 공부(Case Study)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미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인권, 소수자 보호 등 로펌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잘 맡지 않는 사건을 수입해 소송 등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고흥주 교수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미

정부를 상대로 아이티 난민 강제송환 및 강제구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억류됐던 아이티인 310명의 입국이 성사되면서 이 사건은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히게 됐다.

우리나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기준」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에 리걸클리닉 센터가 설치됐으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걸클리닉은 △

지난 6월 홍천 서석면 서석농협에 방문해 지역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강원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사진 제공=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법률상담·자문과 공익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공동된 운영 목표를 갖고, 개별 로스쿨의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 살아있는 사건으로 익히는 법조 실무

대부분의 로스쿨은 리걸클리닉 수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서면 등의 법률지원, 소송수행으로 이뤄지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소송 수행도 포함된다. 때문에 주변에 변호사가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리걸클리닉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학생들은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조사, 법률검토, 증거 수집, 문서의 작성을 비롯해 각종 법적 절차의 진행 등을 수행하는 법률구조 활동을 펼침으로써 실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공익사건을 수행하면서 공적 마인드까지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지역 단체에서 의뢰된 사건의 서면 작성 등 법률지원과 소송수행도 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지도를 맡고 있는 권영실 교수(변호사)는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소송까지도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상담 준비부터 진행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명예살인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기업을 상대로 캐시백 사기 소송 승소를 이끈 로스쿨 학생들 소식을 전하는 뉴스 보도 (사진출처=KBS 경인 뉴스광장)

들 △대학로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 지원에 나선 원광대 로스쿨 학생들 △대기업 상대로 캐시백 사기 소송 승소를 이끈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 등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활동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정정환 지도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은 단순한 법 이론이 아닌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배울 수 있다”며,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공익 단체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도 감동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 리걸클리닉을 더 활성화하려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위주의 학교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리걸클리닉 교육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걸클리닉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까지 낮아진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이해완 회장(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은 “미국의 경우 리걸클리닉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많은 예산과 전문 교육인력의 확보를 통한 대대적 투자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단계적 목표에 치중하여 예산이나 전문 교육 인력의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학생들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외부 변호사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거나, 실무교원들 또한 변호사업 겸직이 금지돼 실제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리걸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조직 비용, 소송수행에 지출되는 비용, 소송수행을 담당할 외부 교수들의 영입 비용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억 3800만원을 리걸클리닉 지원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수립과 공적 자금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게으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권예진

누스 상담 센터 대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재미있어진다. 교과서만 아니면 문 앞에 붙은 전단지 읽는 것조차 흥미롭고, 그토록 싫어하던 운동도 이 참에 정복하겠다는 의욕이 불타오른다. 그렇게 스쿼트 자세의 정석을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이 던진 미끼라도 무는 날엔 만사를 다 제친 채 유튜브와 혼연일체가 되기도 한다. 진짜 이것만 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원래도 멀리 있던 목표는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린다. 겨우 붙들고 있던 멘탈이 와장창 깨진다.

공부라면 어느 정도 도가 텃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터이다. 할 일을 미루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말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교롭게도 자신과의 싸움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더욱 격렬해진다. 유난히 과제가 많은 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게을러져서 어떻게든 할 일을 미루기 위해 비겁한 변명을 지어낸다. “곧 민법 시험이네! 자고로 공부를 할 땐 학문의 근간이 되는 사상적 토대부터 확실히 다져야지. 가만 있어보자 철학 책이 어디 있더라...” 삼천포로 빠졌다가 문득 정신이 들면, 밀린 과제, 고갈된 체력, 낭비된 시간 등 이전보다 훨씬 열악해진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안, 우울, 무기력이 밀려 온다. 한심한 과거의 자신을 책망하고, 야속한 이 세상을 원망한다. 나와는 달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동기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노라면, 경쟁에서 영원히 밀려날 것만 같아서 입이 바짝 말라온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자니 엄두가 나질 않고, 포기하자니 그건 더 겁이 난다. 차라리 잠을 잤으면 체력이라도 보충했을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익숙한 결말이다.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으면서 여러분은 왜 또 할 일을 미루었을까?

여러분이 게을러서?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사자의 마음 속에서는 그 시험이, 그 과제가, 그 과목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맹수나 넘지 못할 높은 산처럼 인식된 것이다. 인간은 강렬한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fight or flight). 과제를 즉시 시작하지 않고 몽그적거리거나 딴짓을 하

며 미루는 행위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 일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마다 강점과 약점, 취향, 숙련도, 처한 상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이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스트레스를 풀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방 청소를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로 여길 수 있다. 난이도가 쉽더라도 너무 지루하거나 번거로운 일이면 역시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느껴진다. 세탁물을 찾거나 여권을 갱신하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잡무를 한없이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로는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방해가 되곤 한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몽땅 외워야지!”, “만점 짜리 답안을 작성해야지!” 다짐하며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 반갑지 않은 부담감이 덕지덕지 붙어서 과제의 덩치를 키운다. 차라리 별 생각이 없었더라면 대수롭지 않았을 일도 이제는 무려 마음먹고, 진지하게, 야심 차게 해내야 하는 숙제가 되어 버린다. 완벽한 그림을 구상하다가 오히려 점 하나도 찍지 못한 채 백지를 제출하는 꼴이다.

어쨌든 그 일이 주관적으로 “어려운” 대상이 되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회피 행동은 일종의 은신처 역할을 하여 불안하고 초조했을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준다. 하지만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데에 있다. 여러분은 언젠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을 넘어야 하며,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시험장에서 LEET 지문을 읽는 것도, 두꺼운 법전을 읽어서 장기 기억 속에 집어 넣는 것도, 손으로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다. 시간을 끌어봤자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만 커질 뿐, 피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 상대는 실제 맹수나 산이 아니다. 그러니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미루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소개한다.

먼저,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칼럼 쓰기”나 “민법 공부하기”는 생각보다 여러 일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그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키워드 세 개씩 적기”, “지난 수업에서 다른 내용 읽으며 내 줄 이내로 요약하기”와 같이 특정 행동을 콧 집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누구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 즉 분량과 시간을 포함하면 도움이 된다(예: “20분 내로 문단에 들어갈 키워드 세 개 적기”). 말보다는 글로 적어두면 더 유리하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증가한다. 안개처럼 뿌연고 모호하던 할 일을 눈에 보이는 분명한 대상으로 만들자.

다음으로, 첫 단계는 쉽고 만만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도 여전히 미루고 있다면, 아직 그 목표가 충분히 쉽지 않다는 뜻이다. 처음 마주하는 문턱이 우스울 정도로 낮아야 부담 없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어느 정도로 쉽고 만만해야 할까?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피곤할 때에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몸살이 났을 때 화장을 지울 기력은 없어도 양말 정도는 벗고 잘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첫 단계는 양말 벗기 수준이 적당하다. 한 시간 동안 수업에서 다른 내용을 읽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진다면, “우선 책을 펴고 세 장만 읽기”,

“10분 동안 개요만 훑기” 정도로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

마지막 전략이다. 이제 지체하지 말고 첫 단계를 시작하라. 사실 일을 미룬다는 것은 개시를 미룬다는 뜻이다. 시작만 한다고 저절로 반이 되진 않았지만, 시작조차 못하면 그 일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인 없는 無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첫 걸음만 떼면 적어도 시작의 실패는 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겨난 일들이 뜻밖에 더 좋은 지점으로 여러분을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 이상 또 다른 변명과 번수에 틈을 내어 주지 말고 즉시, 그냥, 시작하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술술 진도가 나가면 좋겠지만 도중에 또 일을 미루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다시 잡념에 빠지거나 딴짓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책을 읽고 요약하기”라는 과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신호이다. 이때는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 자신을 탓하며 우울해 하지 말고 새로운 첫 단계를 만들면 된다. 현재를 기준으로 쉽고 만만한 목표 행동을 다시 정해보자. 가령 “5분 동안만 읽기”, “세 문단만 읽기” 정도로 다음 행동을 이어가면 된다. 물론 위의 전략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미루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루기 행동이 병리적인 우울 및 불안,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 등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원래 인생은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 듯하다. 그래서 고단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하고, 가끔씩은 도망치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주 작은 용기와 힘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럭저럭 해 볼 만하지 않은가?

# 리트 이후의 이야기

안녕!

원: 소보로 / 그림: 디오

로스쿨 입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1년쯤 은은한(특정시기에는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리트가 끝난 지금은 각자 점수에 맞추어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합니다.

나두(계발)

잘 부탁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물고 더블 상향으로 가!

자소서 꿀팁은 그냥 쓰는 것 자체입니다. 대부분 리트이후에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데

맛이 어떠냐

LEET

...죽을 꼴도 보기 싫어

일단 지원을 해보는 것 자체가 다음 해를 위한 경험이 되기도하고, 기적적으로 합격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매력은 도박에 있다"  
- Charles-Pierre Baudelaire -

잘 쓴 자소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지만 적어도 로스쿨 입사에서는 감점당하지 않은 자소서가 가장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각 로스쿨마다 모집요강 등에 자소서 평가기준을 기재하고있는데,

이에따라 본인의 자소서가 어디에서 감점될지, 득점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제정기준표			
학업능력	30	20	
윤리성	20	20	
생활실용능력	30	15	

자소서를 비롯해서 원서를 제출하게되면 곧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게됩니다.

스터디 구합니다

다음카페, 에브리타임, 학교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모집해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본인의 버릇이나 행동을 타인의 관점에서 신선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시선처리  
말 막히면 다리움직이기

입시하면서 로스쿨창을 많이 봤었는데,

이젠 연재를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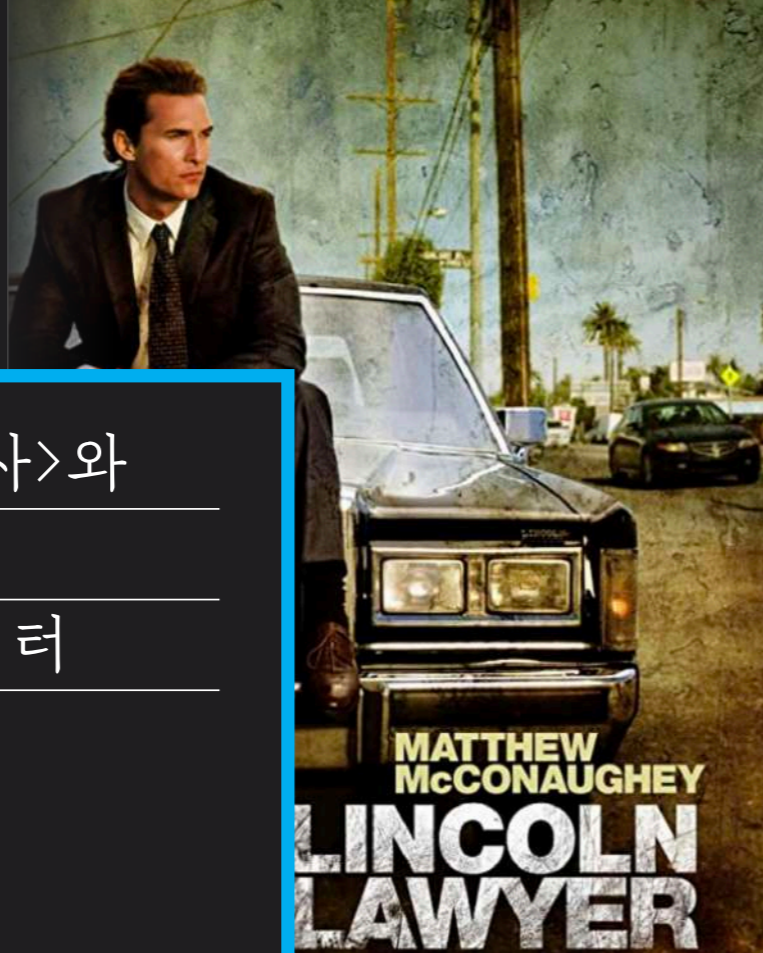
저처럼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응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만든 화 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Sobo Law

이 많은 자소서와 면접은 인스타그램 sobo\_law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보로 : 로스쿨 재학생으로 인스타그램(@sobo\_law)에서 로스쿨 그림일기를 연재하고 있다.



##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와 <재심>을 통해 본 '속물적인 변호사' 캐릭터



상상을 해보자. 영화를 본다는 상상. 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변호사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변호사는 어떤 캐릭터일까? 당신이 상상하는 변호사 캐릭터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투철한 정의감? 정신없이 바쁜 일상? 반듯한 모범생? 당신의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바로 변호사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일 것이다. 이것은 상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시작부터 생뚱맞은 질문을 한 이유는, 영화 속 '변호사 캐릭터'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실제 현실에 있는 변호사들의 성격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캐릭터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영화에 즐기차게 자주 등장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 바로 속물적인 변호사. 이 사람이 주인공일 경우 한 가지 단서가 더 붙는다. 속물적이지만, 정의감은 남아있는 변호사. 정의감이 속물근성을 이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씨가 남아있는 변호사. 이런 인물들은 영화의 초반에 돈만 좇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의감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불태우며 성장하고는 한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두 편의 영화에 대해 함께 얘기하려고 한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2011)와 <재심>(2017)이다.

제목이 풍기는 인상 그대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의 주인공은 속물적이다. 믹 할러(매튜 맥커너히)는 집세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링컨 차를 고집하며, 돈 버는 일에 여념이 없다. 믹을 연기한 매튜 맥커너히는 이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잘 살려낸다. 뻘뻘하지만 실력이 좋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속속 챙기는 변호사. 하지만 매튜 맥커너히가 가진 매력의 힘인지, 이 남자는 어쩐지 밍지 않다.

영화의 초반, 믹은 자신의 사건에 따라붙은 사진기자를 발견하고 돈을 쥐 상황을 해결한 뒤,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노련함이 돋보이는 순간.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사진기사를 부른 것조차 믹의 계획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는 사진기사와 돈을 나눠 가진다.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영화는 믹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는 법률과 경험을 토대로 최 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능력 좋은 장사꾼이다.

믹에게 새 의뢰인이 찾아온다. 루이스 루레(라이언 필립)는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피를 뒤집어쓴 채 발견됐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검찰에 의해 범인으로 몰린 상태. 믹은 범행을 적당히 인정해서 형을 낮추자고 설득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은 무죄라고 고집한다. 난감한 믹. 그러나 주어진 일을 계속한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무죄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반전 등장(여기서부터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나 유의해 읽어주길 바란다). 믹은 루이스가 실제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고, 다른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습범인 것이다. 하지만 믹은 루이스의 변호인이고, 의뢰인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그는 실제적 진실을 쫓는 법률가의 역할과, 의뢰인에게 충실한 변호인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한다. 다음 부분이 인상적이다. 믹은 계속해서 루이스를 변호한다. 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기어이 무죄를 받아낸다. 그러나 믹이 미리 손을 써 둔 탓에 루이스는 이전 살인사건이 발각돼 다시 체포된다. 그는 변호사로서 본분을 다했고, 잊힐 뻔한 진실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뻔한 마음으로 떠나는 믹. 이제 범죄자 루이스의 죄는 남은 재판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다.



홍수정 영화평론가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영화전문지를 통해 등단
-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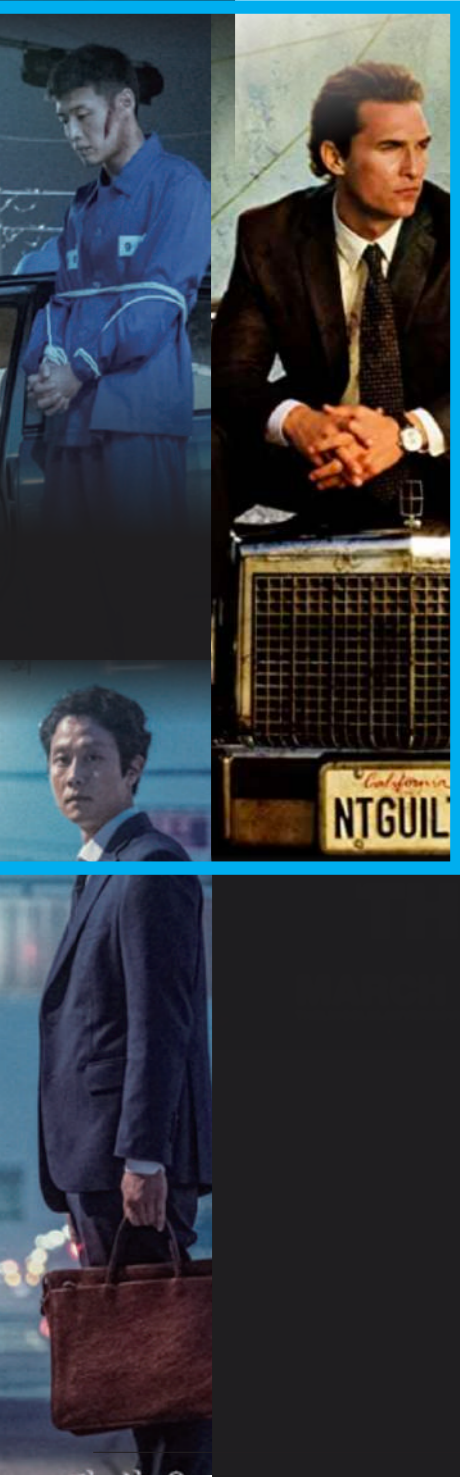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것은 캐릭터나 스토리가 아니라, 영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충분히 더 뜨거워질 수 있을 상황이지만, 먹은 딱 필요한 만큼만 분노한다. 살인 사건의 진범을 끝까지 충실히 변호한다는 점도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정서에 비춰볼 때, 한국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이런식으로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과 한국 관객의 정서 차이가 이런 영화적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짐작한다. 비록 살인자가 맞지만, 나의 의뢰인이니까, 내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게 해주자. '사이다(속이 시원해지는 상황을 뜻하는 은어)'나 '정의 구현'을 선호하는 우리에게 이런 전개는 다소 짝짝하게 느껴진다. 그에 반해 할리우드 관객은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영화 <재심>에도 똑같이 속물적인 변호사가 등장한다. 준영(정우)은 대형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익사건을 맡는다. 사실 공익에는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경찰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현우(강하늘)를 만나고 생각이 달라진다. 준영은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나간다. 목격자였던 현우가 범인으로 몰려버린 그날의 진실을.

<재심>은 세속적인 변호사가 우연한 계기로 정의감을 회복하는 익숙한 플롯을 따른다. 그러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거쳐 <재심>을 보면, 새롭게 보이는 구석이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뜨끈하다는 것이다. 속물적이었던 변호사는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 충분히 교감하고, 사건의 의미를 내면화한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사건이 먹은 한 대 툭치고 지나갔다면, <재심>에서 사건은 준영을 뒤흔들고 그의 안으로 흡수되어 끝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다.

언급했듯이 이것은 영화를 둘러싼 문화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위로할 때, 한국의 관객은 깊숙이 만족한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다지도 다르다는 얘기다. 사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한 엔딩이다. 자신을 때린 범죄자가 무죄를 받았으니.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됐다면 먹은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져갔을 치르도록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먹은 그러지 않는다. 한국 영화에서는 공동체의 윤리가, 미국 영화에서는 직업적 의무가 보다 강조된다. 영화는 그것이 제작되는 문화권의 태도, 컨센서스(consensus), 민감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가 태어난 곳의 공기를 머금고 자라나듯이, 영화는 관객과 문화권의 성향을 반영하며 성장한다.

물론 두 영화만 보고, 이런 경향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미국에도 뜨겁게 떠오르는 변호사 캐릭터가 있고, 한국에도 마지막까지 냉정한 변호사 캐릭터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밟고 선 대지의 토질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크린에 흔적을 남긴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변호사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속한 지역이 다르고, 서로 다른 선택을 내린다. 정답은 없다. 관객인 우리는 그저 그 다채로움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 영화를 둘러보며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엿보는 것이 관객의 특권이니 말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전형적인 '속물적인 변호사' 캐릭터도 속한 곳에 따라 다른 길을 가니, 세상에 완전히 전형적인 것은 없는 모양이다.



# AKLS NEWS

2023  
VOL.52

## 윤석열 대통령 초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법전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서울대 김중보 원장, 이화여대 정현미 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애로점에 대해 듣고,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 해소 △법조 인력·교육 정책 검토 △국가 장학금 다양화·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 서울지방변호사회, 생활 장학금 기부 약정식 체결

9월 22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장학금 기부 약정식이 진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쾌척한 3,000만 원은 서울 소재 법전원(12 곳) 학생들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소득구간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1명씩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11월 8일(수)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약정식에는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김정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올해부터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기부받아 현재까지 2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계속 기부금을 받아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신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임명



### 정병호 원장

법전원협의회는 이사회를 거쳐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겸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은 2025-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정병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은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 유지 및 문항의 질 향상 방안, 출제 체계의 개선 방안, 논술 채점 방식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Q&A

**Q**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응시원서 접수 시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답안 작성 방식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하여야 하며, CBT 방식을 선택할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호루라기로 타종하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타종 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사 처리됩니다.
  - ※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교시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쉬는 시간 포함)에 조작해서는 안 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임의로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꺼서는 안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Q** 응시희망자 시험장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논술형 답안 작성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시험장이 다릅니다.

- CBT 방식 시험장: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CBT 방식 시험장이 개설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순서와는 무관하게 1지망 → 2지망 → 3지망순으로 배정되며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3지망에서도 시험장을 배정받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지역 시험장 → 전국 시험장순으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수기 방식 시험장: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6개) 지역에 수기 방식 시험장이 개설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장으로 배정됩니다.

**Q**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표는 2023년 11월 20일(월)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 학생들이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전국 25개 로스쿨은 국민의 곁에서 선진 법률 문화를 선도하는 법조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5,0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3,000만원

하나은행

3,000만원

KIM & CHANG

3,000만원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1,500만원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1,500만원

YULCHON 律村 윤준

1,000만원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1,000만원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1,000만원

SHIN & KIM

1,000만원

든든한 생활장학금 및 공익사업비 출연기관  
5월~10월 말 현재 기준  
10개기관

2억 1000만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올해부터 공익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34호, 2023년 10월 4일)  
※ 기부를 희망하시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02-888-2035, 02-752-2037)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www.yls.ac.kr](http://www.yls.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